

西陂 柳僖의 江西詩派 수용 양상에 대하여

김 근 태 *

<目次>

- | | |
|----------------------|----------------------|
| I. 서론 | III. 江西詩派 수용의 구체적 양상 |
| II. 19세기 江西詩派의 유행 배경 | IV. 결론 |

<국문 초록>

西陂 柳僖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을 살다간 인물로, 학문 연구와 시문 창작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전형적인 재야학자이자 문인이다. 본고는 그가 “律詩에서는 江西詩派를 배웠다”는 언급에 주목하여, 그의 律詩를 대상으로 강서시파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았다. 유희가 당시 문단에서 진부하게 여겨졌던 강서시파를 존중한 것은 강서시파가 杜甫의 시 정신을 가장 잘 받아들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8세기 조선의 시단에서 화두였던 참신함과 개성의 추구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言語遊戲로서의 시 짓기, 사회 현실의 반영이라는 면에서 벗어나奇怪함만을 추구하던 풍조 등 부정적인 면도 노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본래적 기능을 다시금 생각하고 당시 시단의 문제점을 치유코자 보수적이지만 강서시파의 시풍을 주목한 것이다.

【주제어】 유희, 19세기, 강서시파, 두보, 읍시

* 강원대학교 강사 / neoktkim@paran.com

I. 서론

西陂 柳禧(1773-1837)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을 살다간 인물이다. 소론계열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관직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학문 연구와 시문 창작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전형적인 재야학자이자 문인이다.¹⁾ 그간 어학분야와 천문학분야에서만 관심을 두었지만 근래에 『文通』이라는 거대한 저작물이 단계적으로 출판되어 여러 분야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 유희는 經學, 史學, 語學 등을 위시한 전통시대 모든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지적 능력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저작들을 대부분 섭렵할 정도의 방대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1,500여 수의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 본고는 그가 “율시에서는 강서시파를 배웠다”는 언급에 주목하여 그의 律詩를 대상으로 강서시파의 수용양상을 살펴 시세계의 일단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19세기 江西詩派의 유행 배경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조선시대 한시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成宗과 中宗 이후로 강서시풍이 유행하였고 이후 唐風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³⁾ 우리나라에 중국의 강서시풍이 최초로 유입된 것은 고려말이지

-
- 1) 유희의 생애와 학문 경향에 대해서는 拙稿, 「西陂 柳禧의 생애와 學詩 門路」, 『온지논총』 14집, 온지학회, 2006.; 심경호, 「유희의 시문 문집과 그 정신세계」, 『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Ⅱ』, 한국학중앙연구원(편), 2008. 참조.
 - 2) 유희의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언문지」와 「물명고」 등 어학 계통 자료를 모은 『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Ⅰ』과 산문 자료와 편지글 등을 모은 『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Ⅱ』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07, 2008년 각각 간행되었다.
 - 3) 이종은·정민 공편, 『한국역대시화류편』, 아세아문화사, 1988, p.371. “本朝

만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16세기 전후이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이르러 당시를 배우려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尊唐 일변도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당풍을 추구하였던 시인과 비평가에 의해 강서시풍을 따랐던 시인들은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명나라 복고파의 유입으로 의고적인 흐름속에 宋詩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당풍을 따랐던 시인들이 盛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晚唐의 氣韻이 많아 萎弱하고 기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이르러 漢나라와 唐나라의 시를 겉모습만 본뜨는 明詩에 싫증을 느끼면서 宋詩를 표창하는 분위기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退栗 단계를 지나 尤庵 등 걸출한 주자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주자의 문학관을 추수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宋風이 다시 대두하게 되었다.⁴⁾

이 당시 강서시풍이 다시금 유행하게 된 상황을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명의 시는 우리나라 제일로 삼아야 마땅한데, 망령되고 용렬한 자들 가운데 思致로 그를 헐뜯는 자들이 많다. 요약하면, 氣는 완전하고 聲은 커서 높이 오르고 멀리까지 달리는 듯하니 백 개의 냇물을 토하고 들이킬 도량을 가졌고, 천 근의 무게를 밀어 들게 할 힘을 가졌고, 온갖 만물을 엮신여길 기상을 가졌고, 팔극을 떨쳐 일으킬 뜻을 가졌다. 삼백년 이래로 그와 나란히 할 자가 없는데 하물며 그를 앞서는 자가 있으랴! 저 황정견·진사도를 떠받들고 종성·담원춘에 끌려 다니며 자잘하고 보잘 것 없는 식견으로 웅심하고 아건한 가슴을 엿보아 도리어 똥덩어리를 주워 모아서 그를 헐뜯고 상하게 하려하니 이는 이른바 도깨비불로 해와 달을 헐뜯는 격이다.

詩體不啻四五變 國初承勝國之緒 純學東坡 以迄於宣靖 惟容齋稱大成焉 中間參以豫章 則翠軒之才 實三百年一人 又變而專攻黃陳 則湖蘇芝鼎足雄峙 又變而反正於唐 則崔白李其粹然者也”

4) 이종목, 「조선중기 시풍의 변화 양상」,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 태학사, 2002, p.491.

요즘 시를 말하는 자들은 강서시파·이몽양·경릉과 여러 작가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받아 찬양하여 망극한 은혜가 있는데도 평자들의 입에서 달가와하지 않음을 보고 또한 겉으로는 그들의 단점을 공격하여 마치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하니 진실로 문단의 좀벌레들이다.⁵⁾

위의 글은 유희와 같은 소론계열 문인으로 강화학파의 창시자인 정제두의 문인이었던 南克寬(1689-1714)의 언급이다.⁶⁾ 六經 古文을 중시하는 尙古의 학문태도를 지녔던 그였기에 당시에 유행하였던 강서시풍과 명나라 문학을 받아들인 풍토를 비판한 것인데, 그만큼 당시에 이러한 시풍이 유행하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宋詩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조선 전기 대표적 강서시파 시인이었던 朴闇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시대인 16세기 허균과 17세기 홍만중 등이 박은 한시의 우수성을 설파하였지만 ‘正聲’이 아니라고 하거나⁷⁾ ‘神奇’하다⁸⁾고 하여 주된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尊唐風과 擬古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박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김창협은 앞선 시기 최

5) 南克寬, 『夢巖集』 坤 (『韓國文集叢刊』 209, 한국고전번역원), 「謝施子」. “東溟之詩 當爲本朝第一 妄庸者 多以思致姍之 要之 氣完聲洪 憑高驚遠 有吐納百川之量 排幹千鈞之力 凌暴萬類之象 揮斥八極之意 三百年來 未有能並之者 況先之乎 彼興僥於黃陳 備剽於鍾譚 以瑣尾摘裂之識 窺雄深雅健之胸 反欲倚撫糞壤 逞其謗傷 所謂挾鬼燐而訾日月也”

“近日稱詩者 於江西北地竟陵諸家 實沾丐鑽仰 有罔極之恩 而見其不厭於談者之口 又外攻其短 若不與焉者 眞藝苑之蠹賊也”

6) 남극관의 문학의식에 대해서는 임승현, 「몽예 남극관의 문예의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남극관의 손자인 南正和는 유희와 친분이 있었는데, 1825년 유희는 남정화, 李忠翊과 함께 시에 대해 논쟁을 하기도 하였고, 남정화가 세상을 떠나자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읊기도 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심경호, 앞의 책 참조.)

7) 許筠, 『惺叟詩話』, “朴之詩 雖非正聲”

8) 洪萬宗, 『小華詩評』上 83則.

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던 정두경을 ‘다만 한 때의 意氣를 가지고 앞사람의 그림자와 메아리를 따른다.’⁹⁾고 하여 模擬性을 비판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朴間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하며 盛唐의 시풍과 꺾진하다.’¹⁰⁾고 하였다. 또한 김창협은 시론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正祖도 ‘읍취헌의 시는 精神과 物境이 나아가고 격조가 音韻으로 清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산수 간에 노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세상에서는 소식과 황정견을 배웠다고 하나 대개 스스로 터득한 것이 많기 때문에 唐調宋格을 막론하고 시가의 빼어난 작품이라고 일컬을 만하다.’¹¹⁾고 평하였고, 南公轍은 ‘읍취헌의 시는 천기에서 나온 것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나라 작가 중에 제일이 되는 까닭이다.’¹²⁾라고 하여 조선조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하였다.¹³⁾

萎弱한 晚唐風과 물개성적인 擬古風에 대한 반발 및 朱子 尊崇의 분위기 속에 새롭게 조명을 받던 宋詩에 대한 관심은 18세기에 이르러 ‘朝鮮詩’라고 하는 우리의 시를 쓰자고 하는 분위기와 宋風이니 唐風이니를 따지는 것 보다는 시 자체의 본질에 관심을 갖는 경향으로 시단에서 논의가 사라졌다.

9) 金昌協, 『農巖集』(『韓國文集叢刊』 161, 한국고전번역원) 卷34, 「雜識」, “徒以一時意氣 追逐前人影響”

10) 金昌協, 위의 책.

11) 正祖, 『弘齋全書』(『韓國文集叢刊』 262, 한국고전번역원) 卷161, “挹翠神與境造 格以韻清 令人有登臨送歸之意 世以爲學蘇黃而蓋多自得 毋論唐調宋格 可謂詩家絕品”

12) 南公轍, 『金陵集』(『韓國文集叢刊』 272, 한국고전번역원) 卷20, 「日得錄」, “挹翠軒詩 發於天機者爲多 此所以爲東國作家中第一”

13) 유희도 「長湍歸路路中口呼示同遊」라는 시의 경련에서 “흰 머리 일찍 생겨나 읍취헌을 불쌍하게 여기고, 검은 거문고 늦게나마 좋아해 영기를 떠 올린다(白髮早生憐挹翠 玄琴晚好憶榮期)”라고 하여 요절한 박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Ⅲ. 江西詩派 수용의 구체적 양상

1. 江西詩派의 학습 배경

유희는 중국문학사에 있어 일정 유파의 시풍만을 따르던 편협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학이 있다는 인식아래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학시 과정을 밝혔다.

형께서는 徹(유희의 초명)이 근래 이규보와 박은을 취하여 門路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은의 시에서는 칠언율시를 좋아할 뿐이고, 이규보의 시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시다. 저는 **율시는 강서파를 배웠고**, 절구는 중당을 배웠고, 오언고시는 한위를 배웠고, 사언시와 악부는 문선을 배웠고, 칠언고시 장편은 한유와 노동을 배웠으니, 이른바 문로가 이와 같을 뿐입니다.¹⁴⁾

비교적 어린 나이인 26세에 보낸 위의 편지에서 밝힌 학시 과정에 대한 언급은 먼저 율시에 있어서 강서시파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부친인 柳漢奎가 纖麗한 晚唐風을 추구하다 乙亥獄事를 거치면서 陳與義와 陳師道의 시를 학습하였고, 우리나라 시인으로 趙裕壽와 金昌翁의 시를 애호하였다는 전언을 통해 볼 때,¹⁵⁾ 강서시파의 애호가 부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趙裕壽(1663-1741)는 農巖과 三淵을 따랐던 여러 동료 및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강서시파의 문로를 배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¹⁶⁾, 金昌翁 역시 唐詩에서 벗어나 學宋의 경향이

14) <李奎報詩, 如村學究百聯鈔句> “兄長謂徹近取李文順·朴挹翠爲門路, 翠則徹喜其七律而已, 李則未嘗學也. 徹律詩學江西, 絕句學中唐, 五古學漢魏, 四言及樂府學選, 七古長篇學韓盧, 所謂門路如是已矣.” <答李兄幼遠在寧>, 「方便子書牘」

15) “府君於詩長近體, 初頗纖麗, 乙亥一變, 並宗兩陳, 近也則喜趙后溪金三淵, 溪取命意, 淵取句法也. 尙骨格不拘對偶聲病.” <皇家狀>, 「方便子文錄」

16) 洪良浩, 『耳溪集』(『韓國文集叢刊』 241, 한국고전번역원) 卷30, 「后溪趙公墓

있었던 만큼 부친의 시론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부친의 강서시파 애호는 그와 교류하였던 인물들인 呂春永, 趙重鎭 등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¹⁷⁾ 결국 유희의 강서시파 추종은 家學 및 師友 연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유희가 강서시파를 추승한 것은 궁극적으로 강서시파가 杜甫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⁸⁾ 즉 문로의 최종단계로 두보를 염두에 두고, 두보에 이르기 위한 과정[由江西入杜]으로 강서시파를 추승한 것이다.

시는 『詩經』을 宗으로 삼는데, 『詩經』을 刪定한 것은 어디에서 취하였습니까? 찬미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미하고 비판함을 알지 못하고 다만 경물만을 꾸미는 자는 한철 벌레만도 못합니다. 형님이 매번 詩道를 말씀하시는데 道라는 것은 修己治人·善善惡惡을 일컫는 말입니다. … 정이 많으면 질박해지고 경이 많으면 꾸미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國初의 시는 모두 議論을 숭상하다가, 나라가 장차 망함에 이르면 반드시 경물을 숭상하니 嚙殺淸哀하여 벌레의 울음이나 과부의 노래와 같은 것이 있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立言을 최고로 귀하게 여깁니다. 立言이라는 것은 議論입니다. 杜甫는 자연스럽게 도를 드러내어 그의 시는 반드시 實합니다. 盛唐의 여러 시인들도 또한 간간히 實하기는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나라는 대개 학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韓愈가 문장으로 도에 들어가 또한 實을 펼침이 많았지만 근체시는 그의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五代의 혼란함으로 충효가 완전히 없어져 西崑派와 九僧體에게 그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 구양수가 한번 나옴에 이르러 오로지 六經의 학문을 숭상하여 시문의 번잡한 습속을

禍銘, “崔崑崙昌大曰 以若才格 不脫陳黃門路 豈局於年代風氣歟”

- 17) 『易名集』, 「驢呂侍郎東植燕行」. 呂春永의 아들인 東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준 시에서는 “강서시파의 구절을 종파로 삼았으니, 응당 대국을 놀래키고 돌아오겠지(宗派江西句 應驚大國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 18) 황정견과 두보의 관계를, 주자와 공자의 관계에 비유하여 繼絕之功이 있음을 설파하였다.(〈江西宗派譜贊〉, 『方便子文錄』) 이는 두보에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기에 두보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강서시파를 배웠던 조선전기 해동강서시파의 시론과 상통한다.

힘써 씻어내니 송나라 사람의 識論과 故實은 모두 그의 공입니다. 程子和 張子の 實學이 반드시 구양수에 힘입은 바에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황정견은 타고난 자질이 超絶하고 진사도는 절개가 凜然하여 이때 두보의 전승을 다시 접하게 되었으니 一句一語라도 世道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朱子가 멀리 황정견을 그리워하고 그 詩統을 이은 것입니다.¹⁹⁾

강서시파에 대한 추승은 역대 비평가들이 宋詩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으로 표현된다. 특히 전대에 송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農巖조차 송시에 드러나는 議論性 때문에 비판하였던 것²⁰⁾이 유희에게 있어서는 송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논리화되고 있다. 윗글에서 송시에만 유독 의론이 강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국운이 성할 때는 자연스럽게 의론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議論이 작품 속에 담긴 작자의 주장이나 사상 등을 지칭한다고 할 때, 유희가 생각한 올바른 의론은 道와 연결되며, 이는 儒學에 대한 학습으로 채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¹⁾ 다른 글에서 유희는 唐風과 宋風을 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품격으로 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宋代의 黃庭堅, 陳師道, 陳與義, 呂居仁을 杜甫와 병칭하고 하나의 唐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²²⁾

19) <宋詩皆有議論故實之累> “詩宗三百篇，三百之刪，何取乎？其非以美之刺之者乎？不知美刺，徒粧景物者，候蟲之不若也。兄長每稱詩道，道者，修己治人・善善惡惡之謂也。…多情則質，多景則文，故無論何國，國初之詩，皆尙議論，及其將亡也，必尙景物，噍殺清哀，有如寒蟲之哭，寡婦之歌。是以，君子最貴立言，立言者議論也。老杜自然見道也，其詩必實，盛唐諸人，亦間間用實，其不盡然者。唐大率無學也，韓文公由文入道，故亦多敘實，然近體非其長也。五季昏亂，忠孝掃地，故西崑九僧，尙有其餘風，及歐陽子一出，專尙六經之學，力洗詩文繁瑣之習，宋人之有議論故實，皆其功也。而程張之實學，未必不由其吹噓也，若夫黃太史天資超絶，陳教授持節凜然，於是再接老杜之傳，而一句一語，不忘世道。斯朱文公所以遙慕后山，紹其詩統也。” <答李兄幼遠在寧>，「方便子書牘」

20) 金昌協, 앞의 책, “詩固當學唐 亦不必似唐 唐人之詩 主於性情興寄 而不事故實議論 此其可法也”

21) 두보의 시에서도 의론을 중시하였음은 다음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錢鍾書, 『談藝錄』, 중화서국, 1986, p.179, “昌黎乃宋詩之祖 與杜蘇并樹千古 議論爲詩 杜甫最多 李杜皆以文爲詩”

이는 學唐과 學宋이라고 하는 오랜 논란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고, 시 자체의 본질적인 면을 따지는 詩觀이 이 시기에 이르러 확립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유희는 또한 『詩經』의 美刺를 모르고 경물 묘사에만 치중하는 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의 목적이 立言을 통한 ‘修己治人·善善惡惡’에 있기 때문에 유희에게 있어 송시를 수용하는 강력한 논리적 틀을 마련하게 하였다. 따라서 두보→황정건·진사도→주희로 이어지는 詩統이 유희에게 있어서는 정맥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희의 詩觀은 동시대 문장가이면서 노론 벌열 가문이었던 洪奭周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호응린은 시가 情景를 주로 하며 절대로 議論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또한 이른바 시를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무릇 시는 國風雅頌만한 것이 없다. ‘하늘이 백성을 내시매 물이 있고 법칙이 있네’ 라는 구절은 학자의 의론이 아닌가? ‘문왕이 탄식하며 아! 너 은상아’라는 구절은 史家의 의론이 아닌가? 인정을 풍자하고 물태를 다하며 곡진하고 합당한 것이 거의 열에 여덟아홉이다. 楚나라의 離騷, 漢나라의 四言詩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을 또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두보는 시로써 史를 지었고, 소옹과 주자는 시로써 학문을 이루었고, 백거이와 소식은 시로써 의론을 하였다. 비록 정밀한가 거친가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요체는 모두 세교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다. 저 입을 놀리고 온 마음을 다해 짧은 시구 사이에서 공교로움을 구하면서 방탕하게 노닐다 돌아올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또한 장차 어디에다 쓰겠는가?²²⁾

22) <唐之詩, 無論初盛中晚, 皆近自然> “兄長所論, 大概以唐人爲詩之極, 由前而漢魏爲未備, 由後而宋明爲漸降, 是固斷然之論也. 至謂唐無論初盛中晚者, 傲不敢信焉. 何也? 凡諸詩家所云唐者, 以詩體言也. 兄長所云唐者, 以國號言, 則始於虞世南終於徐鉉, 皆同一唐也. 以詩體言, 則 … 宋之黃陳陳呂與老杜 又共爲一唐. … 今乃以許多諸唐, 打成一片, 曰此乃唐也, 孰敢近得乎?” <答李兄幼遠在寧>, 「方便子書牘」

23) 洪奭周, 『淵泉全書』(『韓國文集叢刊』 293, 한국고전번역원) 卷20, 「題詩藪後」, “胡氏言詩主情景 切不可入議論 是又何嘗觀所謂詩者哉 夫詩莫如國風雅頌 天生蒸民 有物有則 非學者之議論乎 文王曰咨 咨汝殷商 非史家之議論乎 若其

유희도 기본적으로는 溫柔敦厚의 詩敎說에 입각하여 시로써 사람과 풍속을 변모시키고자 하는 유가적 사상을 중시한 성리학자의 시론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江西詩派에 대한 존숭은 晚唐派와의 비교를 통한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만당에서 강서파로 옮겨가기는 어려우나, 강서파에서 만당으로 옮겨가기는 쉬우니, 허와 실이 구분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송시를 배운 자는 모두 大家가 되었으나, 당시를 배운 자 중에는 다만 고경명, 최경창, 백광훈, 이달이 있을 뿐인데, 반드시 小家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강가를 근거로 거쳐하는 이로 3명의 시인이 있는데, 헌적 여춘영, 우고 조중진은 강서파를 공부하였고, 취송 이희사는 만당파를 공부하였다. 무오년 가을에 세 사람이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이희사가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모방하였으나 오히려 배긴 흔적이 많음을 볼 수 있다.²⁴⁾

유희의 부친과 친분이 있었던 呂春永, 趙重鎭, 李羲師 3사람의 일화를 통하여 강서시파의 우수성을 밝혔는데, 만당파와 강서시파를 虛와 實의 차이로 파악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부분과 상통한다. 강서시파는 오랜 학문연마를 통해 世道를 간직하고 그것을 議論으로 표출한다고 하였는데, 이로서 시가 實해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만당풍은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공허해져 결국 虛하다고 본 것이다. 만당풍을 배격하고 강서시풍을 추구하였던 유희는 당시 書畫와 古玩으로 유명하였던

刺人精盡物態 曲暢而恰當者 殆八九於十矣 卽如楚人之騷 漢人之四言 其若是者 又何可勝數 杜子美以詩爲史 邵堯夫朱文公 以詩爲學問 白樂天蘇子瞻 以詩爲議論 雖精粗不同 要皆有裨于世教 彼鳴吻劇心 求工於單辭之間 而不自知其流蕩忘返者 亦將以奚用與”

24) 「聞見隨錄」, “自晚唐而之江西難, 自江西而之晚唐易, 虛實之分也. 東人之學宋者皆成大家, 而學唐只有高崔白李而已, 未必並非小家也. 卽今跨江而居有三詩人, 呂軒適春永·趙于郊重鎭治江西, 李醉松羲師治晚唐. 戊午秋三人同舟, 醉松極力模倣兩人, 而尙多斧痕, 可見也.”

李祖默(1792-1840)²⁵⁾과 대립의 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1836년 이조목이 중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역대시에서 가려 뽑은 시선집인 『吉光裘』를 편찬하고 유희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만당풍, 특히 李商隱을 배운 것으로 평가받는 이조목이 唐風만을 주로 뽑아 놓은 것에 대해 유희는 반박을 가하며, 우리나라 시가 모두 唐詩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서문을 쓴다고까지 하였다.²⁶⁾ 이조목은 서문을 다시 써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유희는 이를 완곡히 거절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강서시파의 추승은 우리나라 역대시인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시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氣를 제시한 글에서는 두보를 근체시를 연 鼻祖로, 송대 강서시파 4명을 四聖이라 하고, 마지막으로 정지상, 김지대, 이규보, 이색, 박은, 이행, 노수신, 박지화, 황정욱, 최립을 十哲이라고 하여 존송하였다.²⁷⁾ 허균의 『國朝詩刪』을 논한 글에서는 “우리 조선에서 명종과 선조 연간에 시로서 노수신, 박지화, 최립보다 높은 이가 없고 최경창, 백광훈, 이달보다 높지 않은 이가 없다.”²⁸⁾라고까지 하였다.²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희는 강서시파의 작법을 배워 두보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였다. 유희가 생각한 최고의 시적 경지는 내용적인 면

25) 이조목의 집안과 유희의 집안은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으니, 이조목의 조모가 유희의 조부인 統의 따남으로 유희의 친고모이다. 이조목이 翁方綱에게 받은 紅豆를 유희에게 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하였고, 유희는 말년에 李祖默, 趙琮鎭과 주로 교류한 흔적이 문집에 남아 있다.

26) <吉光裘序>, 「方便子文錄」.

27) “余故以爲老杜當爲近體之開山祖, 而岑高以下多有元勳, 山谷后山簡齋居仁當爲四聖, 而范陸以下亦多有配食, 鄭知常金之岱李奎報李穡朴間李苻盧守慎朴枝華黃廷彧崔豈當爲十哲.” <詩管窺序>, 「方便子文錄」

28) “國朝明宣之際, 詩莫高於蘇齋守菴簡易, 莫不高於孤竹玉峯蓀谷.” <書國朝詩刪跋>

29) 이상은 즐고, 「西陂 柳僖의 생애와 學詩 門路」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 보충한 것임.

에서는 현실의 문제점과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며, 형식적인 면에서는 聲律과 色澤 등 視聽覺的 이미지를 중시하던 晚唐風이 아니라 다소 투박하게 읽히더라도 그 안에 힘[氣力]을 느낄 수 있는 宋風이었다. 또한 유가의 世教說에 입각하여 시를 통한 사회적 교화를 중시한 성리학자의 시관을 견지하였다고 하겠다.³⁰⁾

2. 江西詩派 수용 양상

강서시파를 배운 조선 전기 해동강서시파의 작법 상 특징을 이종목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³¹⁾

- 句法면에서
 - 意境의 안배에 힘쓴다.
 - 산문투로 쓴다.
 - 拗體를 구사한다.
 - 특이한 句式을 사용한다.

- 詩語면에서
 - 동사나 술어의 단련을 중시한다.
 - 助字를 대우로 맞춰 기이한 미감을 창출한다.
 - 비속한 표현, 속담 등 평이한 구어를 시어로 활용한다.
 - 經典의 용어나 구절을 시어로 구사한다.
 - 조선의 지명이나 인명, 관명 등 고유명사를 시어로 활용한다.
 - 點化와 用事를 활용한다.

강서시파는 위와 같은 구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와는 다른 새로운 시

30) 유희는 고악부가 『詩經』의 美刺정신을 계승하여 世道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악부의 효용성을 옹호하면서 다수의 의고악부를 창작하기도 하였다.(줄고, 「서파 유희의 악부시 연구」, 『정신문화연구』 11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1) 이종목, 『해동강서시파연구』, 태학사, 1995.

어와 의경을 창출하고 기세가 느껴지는 역동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제 유희의 율시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작법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靜室戎戎黑	고요한 방은 어느새 어두워졌는데
羣喧悄悄空	여러 시끄러운 소리 사라져 쓸쓸하다.
艸間應着露	풀에는 응당 이슬이 맺혔을 터
枕外略聞風	베개 너머 가늘게 바람소리 들린다.
客抱元多想	나그네는 원래 생각이 많은 범이라
沉吟已自工	깊이 읊조리니 이미 절로 공교롭네.
不無存孟子	맹자를 보존함이 없지 않으니
似可學周公	주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구나.

<夜半>, 『觀青農夫集』

위의 시는 수련부터 미련까지 모든 연에 대장을 사용하면서도 시상의 전개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첫 구의 ‘戎戎’은 『詩經』 소남의 「何彼穠矣」에 나오는 구절로, 두보의 「放船」 3구 ‘江市戎戎暗’에서 점화한 것이다. 가을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온 방안이 어두워진 상황을 표현하였는데, ‘暗’이라는 글자 대신 ‘黑’이라는 축성글자를 사용하여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상황을 소리로서 표출하였다. 새벽녘에 가까워 초저녁부터 시끄럽게 울어대던 벌레소리도 들리지 않아 더욱 외로운 감정을 2구의 ‘悄悄’라는 단어로 이었다. 한편에서는 새벽이 다가온다는 시간적 배경을 읊었고 경련에서는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홀로 밤을 지새운 이유를 밝혔다. 미련에서는 助字와 人名을 시어로 차용하면서 산문투의 구법을 활용하여 정치한 대장으로 마무리하였다.³²⁾

32) 문집 곳곳에 한유의 글을 읽었다는 표현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 보아 유희가 율시에서 산문적 구법을 자주 구사한 것은 韓愈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李絳茶自號六橋 華士翁星原喚做橋仙 仙隣有松石翁亦稱之 趙東海以詩和仙使余亦和」의 “한유의 시를 가지고, 노동과 함께 창수하리라(聊將昌黎詩 酬與盧玉川)”와 「元朝遺懷」의 “사람들 모두 네가 한유

고시와 달리 율시의 수련이나 미련에서 대장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 정교함을 추구하다 기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儷春體라 하여 예로부터 시인들이 꺼리던 구법이다. 그러나 율시에 있어서 기존 규율의 완성자라 평가받는 두보가 이미 이러한 구법을 자주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보아,³³⁾ 전체적인 시상 전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좋은 시로 평가받을 수 있기도 하였다. 특히 강서시파 시인들이 두보의 이 구법을 많이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두보를 가장 잘 배웠다고 평가받는 盧守愼도 이러한 구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유희가 율시의 수련에서 대장을 활용한 경우는 70여 회가 넘는다. 적어도 율시 4편 가운데 한 수는 이러한 구법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경우 몇 개만 살펴보면, 54세 되는 1825년 歲暮에 지은 시의 수련에서 “달이 등글었다가 이지러진 게 12번, 풀이 누렇게 되었다 푸르게 된 게 50여회(月圓月缺十二屢, 草黃草靑半百餘)”³⁴⁾라는 구절에서도 자연현상과 숫자를 시어로 사용하여 54세 되는 해의 선달임을 정교한 대장을 활용하여 잘 표현한 경우라 하겠고, “병들었어도 분구지우가 없이 삼년간 아파하였고, 곡하면서도 시신을 잡지 못해 천리 떨어져 시름한다(病無分灸三年痛 哭不憑尸千里愁)”³⁵⁾와 같이 특히 애도시의 수련에서 대장을 즐겨 사용하였다. “태어날 때도 울면서 오고 죽을 때도 울음 속에 가니, 인생 백년 울음 속에 있음을 알겠다(生得哭來死哭去, 百年知在哭聲中)”³⁶⁾에서는 當句對를 활용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읊기도 하였다. 두보 대장법의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는 ‘當句對’이지만 지나치게 공교로움을 추구하려

읊는 걸 싫어하는데, 광기는 그칠 줄 몰라 목피를 따르는구나(人皆嫌汝歎韓愈 狂不知裁追牧皮)”를 들 수 있다.

33) 두보의 칠언율시 151수의 수미 양 연 302개 가운데 70연에 대장을 사용하여 평균 네 수에 한 수는 대장연이 아닌 수련이나 미련에도 대장을 썼다.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 역락, 2004, p.231. 참조)

34) 『易名集』, 「歲暮自念有感」

35) 『丹邱處士集』, 「悼亡兄」

36) 『一轉丹集』, 「哭」의 수련

다 眞情을 잃었다고 하여 당대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송대 강서시파 시인들이 두보의 형식과 기법에 치중하다보니 어찌다가 한번 씩 나오던 ‘當句對’를 모범삼아 너무 자주 사용하여 후대 비평가들에게 지적을 당하기도 하였다.³⁷⁾

點檢今年做甚工	올해를 점검하니 무엇을 잘하였던가?
明朝五十五齡翁	내일 아침이면 55세 되는 늙은이.
朋遊送盡重泉下	벗들은 저승으로 다 보냈고
世累捱過苦海中	세상에 연루되어 괴로운 바닷속을 간신히 살아간다.
人以說經爲狗曲	사람들은 경전을 말하는 것을 개소리라 하고
我非多技尙龜窮	나는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곤궁한 날다람쥐 신세. ³⁸⁾
一聲雞報驚開戶	새벽 닭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喜是坤乾萬物通	기쁨은 주역의 이치가 만물에 통합이다.

<丙戌除夜>, 易名集

위의 시는 ‘做甚’과 ‘狗曲’ 등 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시어로 구사하였고, 경련과 미련에서는 산문적인 구법을 활용하여 생경하면서도 특이한 미감을 창출하였다. 특히 경련에서는 ‘狗曲[개소리]’과 같은 저속한 시어를 써서 당시 유교경전을 경시하는 풍조를 질박하면서도 강렬하게 풍자하는 효과를 거두어 강서시파의 ‘以俗爲雅’라는 시정신을 잘 드러내었다.³⁹⁾ 「睡晨醒」의 경련에서는 “겨울 별은 차가와 과부가 화장한

37) 『瀛奎律髓彙評』 卷25, 「題省中院壁」 조에 황정견, 진사도, 진여의 세 사람이 당구대를 활용한 예로 11개가 인용되어 있다.

38) 『荀子』에 날다람쥐는 다섯 가지의 재주가 있지만 궁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39) 「排悶」이라는 시의 함련에서도 “경술은 세상에서 개소리라 조롱할테고, 가풍은 사람들 누가 계속하여 이어짐을 알리오(經術世將嘲狗曲 家風人孰識蟬嬀)”라고 읊기도 하였다. 「吾翁七歌」의 다섯 번째 작품의 수련의 “관청이여 관청이여 삼면이 막혀있으니, 하늘이 궁벽진 골짜기 만들어 놓고 곤궁한 사람 기다리게지.(觀靑觀靑三面障 天設窮谷待窮相)”라는 시구의 ‘窮相’이란 시어도 마찬가지로이다.

모습 띠고, 밤중에 내리는 비는 그윽하여 귀신이 우는 마을 같아라(冬陽冷作孀粧色 夜雨幽如鬼泣城)라고 읊었는데, 아무리 화창한 겨울날씨라도 온도는 낮기에 포근함을 느낄 수 없음을, 곱게 화장한 과부에게서 아름다움보다는 측은함을 느끼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夜會敬敷宅拈韻」이라는 시의 함련에서는 “그대 가슴속 아름다움 시로 인해 드러나고, 부인 손의 금과 은 술 때문에 가벼워졌다(君胸錦繡因詩著 婦手金銀爲酒輕)”라고 읊어 술값으로 아내의 패물을 팔아버렸음을 해학적으로 읊기도 하였다. 「雨夜與朴聖瑞三從昆季得前字」라는 시의 경련에서는 “서늘한 밤 오동나무 책상에 기대어, 꺼져가는 화로에 담배연기 빨아들인다(涼夜隱梧几 殘爐吸艸烟)”라고 읊었고, “연자는 담파초인데 옛날에 쓴 자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풍속이 크게 숭상하여 일부러 그것을 썼다.(烟卽淡巴艸 古無用者 而東俗太尙故用之)”라는 주석이 병기되어 있다. 「元日次韻耐可四首」라는 시의 함련에서는 “남쪽 나무의 까치는 어찌하여 곤궁한 마을에 집을 지었고, 북어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흙 값과 같이 떨어졌다(南鷓爲何窮巷作 北魚今幸賤泥如)”라고 읊었고, “속설에 까치가 남쪽나무에 둥지를 틀면 집안에 과거급제의 경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침 둥지를 튼 것이 있다. 또 금년 북어의 값이 갑자기 크게 떨어져 함께 그것을 언급하였다.(俗說鷓巢南樹 家有科慶 而今適有巢者 又今年北魚價忽太賤 故雙及之)” 라는 주석이 병기되어 있다. 이와같이 세련된 비유보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나 풍속을 시어로 활용한 것도 ‘以俗爲雅’의 또 다른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蝸生」이라는 시의 수련에서는 “달팽이는 두 뿔을 다투려 하지 않는데, 표범은 어찌 수고로이 가죽을 남기려하는가(蝸生未肯競兩角 豹夾何勞留一皮)”라고 하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우리 속담을 시어로 차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련에서는 이와 非라는 助字를 서로 정치하게 대를 맞추었는데, 산문투의 구법이 지나치게 거칠게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助字로 정교하게 대를 맞추어 파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강서시풍의 또 다른 특징이다.⁴⁰⁾

위와 같이 유희가 읊시의 對聯에서 助字를 활용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견된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 露以爲霜寒暑換 이슬이 서리가 되니 추위와 더위가 바뀌었고
 鴻之於燕去來違 기러기와 제비는 오고 감이 어긋나는구나.
 <與尹仲和滄朴星瑞禹淳和老杜秋興八首> 3번째 작품중 頸聯, 「旬有六集」

㉡ 來而譽者去而毀 올 때는 칭송하던 자도 갈 때는 비방하고
 異則哭之同則歌 다르면 곡을 하고 같으면 노래하지.
 <和韻效白香山放言> 5수 중 네 번째 수의 首聯, 志學集」

㉢ 水色多於地 물 빛이 땅보다 많은데
 山行見者天 산속길에서 보이는 것은 하늘뿐.
 <竹山途中>의 頸聯, 「旬有六集」

㉣ 英雄老矣空彈劔 영웅이 늙어버려 부질없이 칼 어루만지고
 疾病纏之不出家 질병이 붙어 집을 나서지 않는다.
 <雪夜疊前韻>, 易名集」

㉠은 젊은 시절 유희와 친밀하게 지낸 벗들인 尹滄, 朴禹淳과 만나 읊은 시로 14자 가운데 4자를 助字로 쓰면서도 정치한 대장으로 계절의 변화와 벗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읊었다. 의기가 맞는 친한 벗이지만 현실에서의 만남은 그리 용이하지 않음을 기러기와 제비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 새롭다.

㉡은 14자 가운데 무려 6자를 助字로 채우면서도 ‘而譽’, ‘而毀’, ‘則哭’, ‘則歌’와 같이 동일한 자음을 연이어 써서 리듬감을 살렸다.

㉢은 助字 ‘於’와 ‘者’를 대로 맞추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산문투로 서술한 경우이다. 강이 넓고 거기에 하늘도 맑게 개인 상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은 ‘矣’라는 助字를 써서 늙어 버린 자신을 한탄하는 마음이 강함을

40) 이종묵, 앞의 책, p58.

드러냄과 동시에 끝이라는 의미도 아울러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경우이다.

三微歷數遷衰世	삼대의 운명 쇠퇴한 세대로 옮겨져
八路謳歌向聖人	팔도의 노래는 성인을 향한다.
天策方與仙木子	하늘의 뜻 이제 신선같은 이씨에게 주려고 하니
臺城莫賴佛金身	누대와 성곽 도금한 부처의 몸에 의지하지 말라.
千季滿月餘荒址	천년의 만월대 황폐한 터에 남아 있고
萬事斜陽入廢闌	만사가 석양에 무너진 성곽으로 들어간다.
貴客無情簫鼓地	귀한 나그네 무정하게 툇소불고 복치던 땅
杜門舊姓涕霑巾	두문동 옛 인물들 눈물 흘려 수건을 적시네.

<滿月臺懷古> 三首 중 첫 번째, 否翁集

위의 시는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에서 회고하면서 느낀 감정을 기이한 대장을 활용하여 표현한 경우이다. 1구의 三微는 三正의 시초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 三代의 달력을 말한다.⁴¹⁾ 2구의 八路와 대를 이루기 위해 사용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고려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1구의 ‘衰世’와 2구의 ‘聖人’도 쇠퇴한 나라를 새로이 창업한 이가 禹임금과 文王 등 동양에서 聖人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를 맞추는 치밀함도 보였다. 즉 고려시대의 운명이 다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성인을 위한 찬가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교묘하면서도 정치한 대장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함련은 破字를 시어로 활용한 경우인데, ‘李’字를 파자하여 ‘木子’라 하였고 이를 또 ‘金身’이라고 받아 五行으로 대를 맞춘 경우이다. 이 시의 끝에 유희의 벗인 吳彦諳가 ‘삼사구는 기이한 대장인데 또한 기롱함과 풍자함이 있다(吳敬由曰三四奇對亦有譏諷)’고 한 주석이 달려 있다. 경련에서는 ‘滿月’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시어로 차용하면서 ‘斜

41) 『後漢書』, 「陳寵傳」의 “三微成著 以通三統”이라 한 주석에 ‘十一月陽氣始動 微而未著 故周以天正爲歲 十二月萬物始芽 故殷以地正爲歲 三月萬物始達 人得加功以展其業 故夏以人正爲歲’라고 하였다.

子'와 정치하게 대를 맞추었다.

㉠은 '穀雨'라고 하는 절기를 시어로 사용하면서 '穀'을 같은 식물인 '條'로, '雨'를 같은 기상현상인 '風'으로 정치하게 대를 맞춘 경우이다.

㉡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干支를 운으로 삼고 대를 맞춘 경우이다. 이 시의 제목 아래 “이러한 체(간지로 운을 맞추는 체제)는 옛날 작가에게는 많이 있었다. 다만 紙韻 4글자는 유독 쓰임을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지금 그것으로 함련, 경련을 압운하여 드디어 하늘이 내린 기이한 격식을 이루었다.”⁴³⁾라는 주석이 병기되어 있다. 함련에서는 자기라는 의미의 '己'와 괴롭다는 의미의 '辛'을 대로 맞추었고,⁴⁴⁾ 경련에서는 옛날 軍中에서 곡식을 빌릴 때 사용하던 은어인 '庚癸'와 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甲辰'을 대로 맞춘 경우이다.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시어로 차용하여 기이한 미감을 살린 것이다.

㉢은 '李白'과 '楊雄'이라는 고유명사를 대로 맞추면서 '李(오얏)'와 '楊(버들)'이라는 식물로 정교하게 대장을 맞춘 경우이다.

㉣은 '萬事'와 '八字'를 숫자로 대를 맞추면서 '八字'라는 구어체 시어를 활용한 경우이다.

IV. 결론

18세기 조선의 시단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트렌드였다. 김창흡, 이병연 등 노론계열 문인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白岳詩壇, 安山을 중심으로 활동한 南人과 小北문인들, 서얼계층 지식인들과 노론계열 지식인이 주축이 된 白塔詩派 등 지역과 출신 성분은 다르

43) “此體古作家多有之 但恨紙韻四字獨不見用 今以之押內句 遂成天生奇格”

44) 「次韻東曹李中錫正」의 경련에서 “시구 있으니 지기를 생각하고, 잠이 없는 것이 수경신하는 것 같다(有句思知己 無眠若守庚)”라고 하여 '자기'라는 의미의 '己'와 災厄을 물리치기 위해 庚申일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샌다는 의미로 사용된 十二支의 하나인 '庚'과 대를 맞추기도 하였다.

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은 참신함과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시대의 격식과 규범으로부터 탈피하고 변화를 추구하여 ‘새롭게 만들기’, ‘낯설게 만들기’가 당시 시인들에게 중시되게 되었다. 여기에도 명말청초의 선진적이고 자유로운 사상과 문학의 유입은 시인들의 혁신적 문학 활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⁴⁵⁾

이렇듯 18세기의 자유롭고 활기찬 시적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류적 병폐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참신함과 개성을 추구하다奇怪하고 險僻함으로 빠지게 되었고, 말장난식의 言語遊戲로서의 시 짓기,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출방식 등이 그것이다. 유희는 당시 시단의 이런 흐름을 극력 혐오하였고 이 병폐를 고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당대에서는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게 받아들여졌지만 깊은 학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면서도 기세가 높은 시를 짓고자 하는 강서시파에 매료되었고 그들의 시풍을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보의 시정신이고, 강서시파 시인들의 작법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었던 조선전기 해동강서시파 시인들과의 변별성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유희는 무조건적인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⁴⁶⁾ 당시 시단에서 드러난 병폐를 인식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시의 참된 정신을 배울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유희의 강서시풍 수용 양상을 살피면서 강서시파에서 중시한 율격과 점화에 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후고를 기약한다.

45)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참조.

46) 유희는 고증학적 학문 태도를 바탕으로 성현들의 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긍정하였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동양의 학문과 접맥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즉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의 소유자였다고 하겠다.

<參考 文獻>

-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1, 한국고전번역원.
南公轍, 『金陵集』, 『韓國文集叢刊』 272, 한국고전번역원.
南克寬, 『夢巖集』, 『韓國文集叢刊』 209, 한국고전번역원.
柳 僖, 『文通』,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正 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2, 한국고전번역원.
許 筠, 『惺叟詩話』
洪良浩, 『耳溪集』, 『韓國文集叢刊』 241, 한국고전번역원.
洪萬宗, 『小華詩評』
洪奭周, 『淵泉全書』, 『韓國文集叢刊』 29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 I』,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 II』, 2008.
- 김근태, 「西陂 柳僖의 생애와 學詩 門路」, 『온지논총』 14집, 온지학회, 2006.
——, 「서파 유희의 악부시 연구」, 『정신문화연구』 11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 역락, 2004
심경호, 「유희의 시문 문집과 그 정신세계」, 『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 II』, 한국학중앙연구원(편), 2008.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이종묵, 『해동강서시과연구』, 태학사, 1995.
——,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 태학사, 2002.
- 이중은·정민 공편, 『한국역대시화류편』, 아세아문화사, 1988.
임승현, 「몽예 남극관의 문예의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李慶甲 集評校點, 『瀛奎律髓彙評』, 上海古籍出版社, 1986.
錢鍾書, 『談藝錄』, 中華書局, 1986.

Abstract

*In Regard to the Acceptance Phase of Jiangxishipa
of Seopa Ryu-Hee / Kim Geun Tai**

Seopa Ryu-Hee who devoted his whole life to studying and composing as a typical scholar who was not in a position of political power and a writer lived between the late 18th-century and the early 19th-century. This piece of writing focused on the fact that he learned Jianxishipa in lushi, it examined the acceptance phase of Jiangxishipa in his lushi. The reason why he respected Jianxishipa, even though it was considered to be cliché by literary circles, he thought that it adopted the poetic spirit of Dufu most. Though the pursuit of creativity and individuality which was the topic of the world of poetry in the 18th-century Joseon Dynasty period had many positive aspects, it revealed the negative side in the way that it only pursued the strange trend away from the reflection on the society's reality and it saw the poem as a play on words. In this situation, he reconsidered the original function of poem and intend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then literary world.

【Key words】 Ryu-Hee, 19th-century, jiangxishipa, dufu, lushi

투고일 : 5월 9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

* Lecturer of Kangwon Univ. / neoktkim@paran.com